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 추진

- 2차관 주재,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 개최
- '25년도 해상풍력 경쟁입찰 추진 방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2.(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제조기업, 해상풍력 설치선 기업 등과 함께 공공의 역량 제고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경쟁입찰에서 1.9GW가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별 규모도 평균 300MW를 초과하며 대형화되고 있다. 한편, 발전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자본 조달 능력과 개발 경험이 요구되어 공공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별도 입찰 경로를 올해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입찰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다양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동 추진 방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상풍력 설치선(WTIV)은 해상풍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대형 설치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속가능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풍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함께, 선박·항만 등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 중에 경쟁입찰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제도 개선 등을 거쳐 '25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명우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허정민 (044-203-5362)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5380)
		담당자	사무관	김동기 (044-203-5384)

